

다니엘서 - 번호 104

예언의 원칙을 밝히다: 말세의 조사심판과 집행심판 이해

Jeff Pippenger

2024-02-29

우리는 1989년 '끝의 때', 로널드 레이건과 로마의 교황 사이의 비밀 동맹에 의해 소련이 휩쓸려 무너졌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여섯 절의 봉함을 푸시는 그의 사역 속에서 밝히신 예언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우리는 로마의 삼중 적용과 바벨론의 몰락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여인과 그녀가 타고 다스리는 짐승의 정체를 밝혀 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여인과 짐승의 묘사는,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어 미가엘이 일어서고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마감될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현대 바벨론에 내리시는 점진적 심판을 드러낸다. 그 기간은 그분의 자비가 섞인 채로 시행되는 하나님의 집행적 심판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이어 일곱 마지막 재앙 때에는 그분의 심판에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는다. 이 두 단계는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된 조사 심판에서도 시사된다. 조사 심판은 죽은 자들에 대한 조사와 심판으로 시작되었고, 2001년 9월 11일에는 산 자들에 대한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

살아 있는 자들의 심판도 두 시기로 나뉘는데, 첫째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으며,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므로 14만 4천에 들 후보자들에 대한 조사와 심판으로 시작되었다. 죽은 자들에 대한 조사 심판은 생전에 어느 때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록되고 등재된 죽은 자들의 이름은 이어서 죄의 책과 대조되었다.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졌다.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한정되어 있는 반면, 죽은 자들에 대한 조사 심판에는 그러한 한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조사심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판이 14만 4천의 인침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또 하나의 직접적인 증언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베드로전서
4:17.

산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며, 그 심판이 시작되는 특정한 때가 있다. 산 자들의 심판은 서기관들의 먹통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며 교회와 또한 그 땅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고 울부짖는 남녀에게 표를 할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부류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십사만 사천과 대조되어 드러나는데, 거기서 요한은 그들을 큰 무리라고 지칭한다. 큰 무리는 살아 있는 자들의 심판 기간 동안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살아 있는 영혼들의 부류를

나타내는데, 이는 그들이 교황의 태양의 날에 예배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에, 에스겔 9장에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진 천사에게 인침을 받은 자들, 곧 요한계시록 7장의 인침이기도 한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기치로 높이 들려질 것이다. 그때 현재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나간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여 일요일을 준수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교회 안에,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이라고 정직하게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의 성실함과 그분 앞에서의 정직함을 받아들이신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가 법으로 강요되고, 참된 안식일의 의무에 관하여 세상이 깨우침을 받게 될 때에는, 로마의 권위 외에는 더 높은 권위를 갖지 않은 규정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누구든지 그로써 하나님보다 교황권을 더 높이는 것이 된다. 그는 로마와 로마가 제정한 제도를 강요하는 권세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의 표라고 선언하신 제도를 거절하고, 그 대신 로마가 자기 우월성의 증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 그들은 이로써 로마에 대한 충성의 표, 곧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쟁점이 이와 같이 분명히 사람들 앞에 제시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이끌어질 때에야 비로소, 범죄를 계속하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대쟁투, 449.

인 맞은 자들의 기치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복종으로 부르는 자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서서 백성을 위한 깃발이 될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에게로 찾아올 것이요, 그의 안식은 영광스러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곧 두 번째로 손을 펴사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서 남아 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리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 사방에서 함께 모으시리라. 이사야 11:10-12.

현재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살아 있는 동안 심판을 받지만, 그들의 심판은 살아 있는 14만 4천에 대한 조사 심판 뒤에 와야 한다. 이는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의 위기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진 남녀를 봄으로써만 경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는 세상으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하는 것이다. 세상은 오직 진리를 믿는 자들이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어, 높고 거룩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것들을 발 아래 짓밟는 자들 사이의 구분선을 높고 숭고한 의미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을 봄으로써만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성화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과 거짓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사이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드러낸다. 시험이 이를 때에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곧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진리를 들은 후에도 계속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기를 고집하는 자들은,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생각한 죄의 사람의 표지를 지니는 것이다.” Bible Training School, December 1, 1903.

셋째 엘리야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집행 심판은 곧 임할 일요일법령과 함께 시작된다. 그것은 두 시기로 나뉘는데, 첫째 시기에는 지금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와 섞여 있으며, 그 뒤에는 자비 없이 쏟아지는 일곱 마지막 재앙이 뒤따른다.

은혜의 시기는 더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그의 제지하시는 손을 거두고 계신다. 오랫동안 그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남녀에게 말씀해 오셨으나, 그들은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그분은 그의 심판으로 그의 백성과 세상에 말씀하고 계신다. 이러한 심판의 때는 아직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 자비의 때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자애롭게 굽어보실 것이다. 그의 긍휼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으며, 그의 손은 여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뻗쳐져 있다. 이 마지막 날들에 처음으로 진리를 듣게 될 많은 이들이 안전한 우리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906년 11월 22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께서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신 '다른 양들'이며, 그분이 부르실 때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또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니,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리하여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16.

그들이 듣는 '음성'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으로, 그녀가 은혜기간의 죄의 잔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갑절로 내려질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 크게 외친다.

선지자는 말한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힘찬 음성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 (Revelation 18:1, 2). 이것은 둘째 천사가 전한 바로 그 기별이다.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이는 "그가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하게 하는 포도주로 만국을 먹였"기 때문이다 (Revelation 14:8).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그의 거짓 교리들이다. 그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고, 사탄이 에덴에서 처음으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 곧 영혼의 본래적 불멸을 되풀이하였다. 그는 이와 유사한 많은 오류를 널리 퍼뜨리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었다 (Matthew 15:9).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성전을 신성을 모독하는 불경한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행위들 가운데 하나는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하게 하신 일이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사업에서도 교회들에게 두 번의 구별된 부르심이 주어진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는 그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음이라'(Revelation 14:8)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가운데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Revelation 18:4, 5) 하였다." Selected Messages, book 2, 118.

미국에서 곧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현대 바벨론에 대한 점진적 집행 심판이 시작되고, 두 심판이 겹치면서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기간이 시작된다.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세 번째 사자의 사역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때 동안의 사역을 대표하며, 현재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 중 마지막 사람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번째 음성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올 때 끝난다. 그 사역은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사역이 시작될 때 14만 4천의 성전의 정결과 정화를 나타내며, 또한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사역이 끝날 때 큰 무리의 성전의 정화와 정결을 나타낸다.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의 때에 오순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재현된다.

우리의 품성에 단 한 점의 흠이나 오점이라도 남아 있는 한,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인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바로잡고 영혼의 성전을 모든 부정에서 정결케 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러면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이른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비가 우리 위에 내릴 것이다....

"형제 여러분, 위대한 준비의 사업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연합하는 자들은 세속의 틀에 맞추어지며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자들—이들이야말로 하늘의 틀에 맞추어지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칠폰이 공포되고 도장이 찍히면 그들의 품성은 영원토록 순결하고 흠 없이 남을 것입니다." 증언, 제5권, 214, 216.

바로 여기에서 예언의 말씀에 겉보기의 불일치가 있는 듯하여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제자들의 시대의 오순절에 권능을 입은 그 메시지는 이방인들, 즉 곧 다가올 주일법의 때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다. 오순절에 권능을 입은 그 메시지는 고대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는데, 그들은 또 다른 3년 반 동안 여전히 마지막 유예 기간에 있었다.

칠십 이레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해졌나니, 허물을 마치며 죄를 끝내며 죄악을 속하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며 환상과 예언을 봉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붓기 위함이라. 다니엘 9:24.

오순절에 권능을 받은 그 메시지는 서기 34년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았다. 화이트 자매는 이 사실을 종종 언급한다.

그때 천사가 이르되, '그가 한 이레[7년] 동안 많은 사람과 언약을 굳게 하리라.' 구주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뒤 7년 동안 복음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도록 되어 있었으니, 그중 3년 반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셨고, 그 후에는 사도들이 전하였다. '그가 그 이레의 한가운데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리라.' 다니엘 9:27. 서기 31년 봄, 참된 희생이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드러지셨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져 희생 제사 제도의 거룩함과 의미가 떠났음을 보여 주었다. 땅의 제사와 예물이 그칠 때가 이르렀다.

"그 한 이레—곧 칠 년—은 서기 34년에 끝났다. 그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유대인들은 마침내 복음을 거절함을 확증했다; 박해로 인해 각지로 흩어진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사도행전 8:4);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해자 사울이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었다." 시대의 소망, 233.

그리스도의 부활 후 오십일째 되는 오순절에 능력을 입은 그 기별은, 복음이 그리스도의 다른 양떼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는 일요일 법령과 부합한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 삼 년 반이 지나서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기로 확정지었고', 그때 그 기별은 이방인들에게로 갔는데, 그들은 그때 복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었다. 겔보기의 모순은 서기 34년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기로 확정했다는 주장으로 더욱 커지는데, 화잇 자매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제의 제도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분과 떨어져서는 아무 가치도 없었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음에 내줌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거절을 확정지었을 때, 그들은 성전과 그 봉사에 의미를 부여하던 모든 것을 거부한 것이었다. 그 거룩함은 떠나갔다. 그것은 파괴될 운명이었다. 그날 이후로 희생 제물과 그와 관련된 봉사는 무의미해졌다. 가인의 제물처럼, 그것들은 구주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유대인들은 사실상 자기들의 성전을 무너뜨린 셈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전의 안쪽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져, 위대한 최후의 희생이 드러졌고, 희생 제사의 제도가 영원히 끝났음을 의미했다. 시대의 소망, 165.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한 그들의 거부를 스테반의 돌로침 사건에서 확정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였는가? 이 겔보기의 모순은 오순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머지않아 다가올 일요일 법과 연결시키는 데서 생기는 겔보기의 모순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겔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는 점을 다음 글에서 정리할 생각이지만, 이번 고찰의 목적이 선지자들이 지적한 사실, 곧 말세의 하나님의 라오디게아 백성이 심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조사심판과 집행심판이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서 어떻게 서로 맞닿게 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심판의 여러 시기와 목적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방금 제기한 겔모순과 관련된 계시를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안식일의 변경이 자신들의 교회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바로 이 변화를 교회의 최고 권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내세운다. 그들은 한 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킴으로써, 개신교인들이 신적 영역에서 입법할 수 있는 교회의 권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자신의 무류성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세상과 개신교 교회들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절하면서 그 교회가 만들어낸 가짜 안식일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사실상 이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들은 이 변경의 권위를 인용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논리의 오류는 쉽게 드러난다. 교황주의자는 개신교인들이 스스로를 속이며, 이 사안의 사실들에 자신하여 눈을 감고 있음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예리하다. 일요일 제도가 점점 더 지지를 얻어 갈수록, 그는 기뻐하며, 그것이 결국 전 개신교 세계를 로마의 깃발 아래로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안식일의 변경은 로마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징 또는 표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이해하고도 참된 안식일 대신 거짓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그것을 명령한 그 권세에게 경배를 드리는 셈이 된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정하신 날을 대신하여 온 세상이 받아들인 교황권의 안식일이다.

그러나 예언에서 지정된 바와 같이 짐승의 표를 받을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시험의 때도 아직 오지 않았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교회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 아무도 빛을 받고 넷째 계명의 의무를 깨닫기 전에는 정죄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칙령이 공포되고,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거짓된 것과 참된 것 사이의 경계가 분명히 그어질 것이다. 그때에도 여전히 범죄를 계속하는 자들은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이 시기에 다가가고 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세속 권력과 연합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그것에 반대함으로써 가장 혹독한 박해를 견뎌야 했던 거짓 종교를 떠받치게 될 때, 교회와 국가의 결합된 권위에 의해 교황권의 안식일이 강제로 시행될 것이다. 국가적 배교가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결국 국가적 파멸로만 끝나게 될 것이다. 성경 훈련 학교, 1913년 2월 2일.